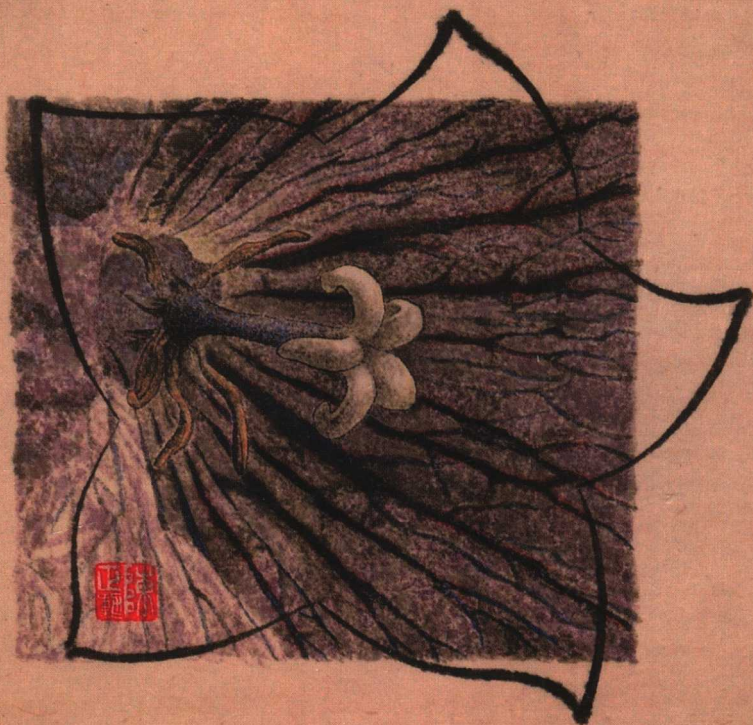


문창남문집

3 중단편소설집

《문창남문집》 간행위원회



민족출판사

문창남문집 3
중 단 편 소 설 집

《문창남문집》 간행위원회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文昌男文集. 3 / 文昌男著; 权贵女, 文春喜编.
北京: 民族出版社, 2006. 11
ISBN 7-105-08043-4

I. 文... II. ①文...②权...③文... III. ①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③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34610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11月第1版 2006年1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7.875

字数: 213千字 定价: 26.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떠나지 않은 창남군

—간행사를 대신하여

《문창남문집》 간행위원장 남영전

우리 문단의 인기인물이었고 또한 늘 화제에 오르곤 했던 창남군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떠나간 창남군에게 꼭 해주어야 할 일 하나를 성사시키지 못해 《문창남》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료녕의 정철선생님이 창남군의 영결식에 가셨을 때, 창남군의 부인이 정철선생님께 창남군이 모아둔 수필복사본 한 묶음을 보이더라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안았다. 이 수필묶음은 창남군이 창녕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진황도에서 쓴 글인데 그가 출판을 염두에 두고 책이름과 목록까지 다 만들어놓았었다. 만약 이 수필묶음이 출판된다면 창남군의 세번째 수필집이 된다. 하지만 일은 마음먹은대로 잘 되지를 않았다. 그러던중 창남군의 제자인 안영수씨가 5권으로 된 《문창남문집》을 펴내는 큰일을 맡기하여 해냈기에 나는 감개무량하지 않을수 없다.

창남군은 실로 뼈아픈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다. 24세의 꿈많은 나이에 9년이란 긴긴 옥고, 2년 넘는 농촌개조생활, 말하기 쉽

고 글로 옮기기도 어렵잖겠지만 정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캄캄
철야의 암흑과 흑한이 가져다주는 뼈아픈 고통을 상상하지 못할것
이다.

그래서 새 날과 새 봄을 맞은 창남군은 서리서리 영킨 원한과
해방의 환희를 뜨거운 눈물로 엮었고 불타는 글로 웨쳤다. 갈증에
못견디어 비물 한컵 받아마시려다가 도리깨로 콩단 두드리듯 매
맞던 옥중생활, 10년만에 철창문을 나와 초라한 차림으로 그가 살
던 옛집을 찾던 쓸쓸한 광경, 아들이 《특무》라고 부친님이 또다시
매맞아 세상떴다는 청천벽력, 《립공속죄》란 말에 문예경연의 극본
을 쓰느라 런 이를 밤을 꼬박 새웠고 사흘째는 코피를 쏟으며 책
상머리에 까무러치던 모습, 5층 아파트로 새집들이 한 첫날밤에
잠 못들고 깊은 추억의 소용돌이속에 빠졌던 영상...그의 글을 읽노
라면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언저리가 찡해남을 어찌지 못한다.

창남군의 이야기는 늘 끝없는 강물처럼 흘렀다. 같이 기차나
빠스로 여행을 할 때면 그의 이야기는 긴긴 레우와 도로보다 길었
고 호텔방의 모임에서는 그가 이야기판을 독차지하다싶이 하였다.
그의 경력과 수난사는 문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언제나 민족심과 정열로 끓어넘치는 글발, 구수하면서도 청산
류수인 언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양복호주머니에 늘 넣고다니
는 자그마한 거울과 빗을 꺼내여 머리칼을 단장하는 멋쟁이, 그와
같이 있는 좌석에서는 언제나 떠들썩한 폭소가 터져서 좋았다.

이렇게 인상적이던 창남군과의 마지막 만남은 1992년 봄 《흑
룡강신문》 문예부 문학모임에서였다. 창남군이 창녕기업으로 자리
를 옮긴지 반년 남짓한 때였다. 회의가 시작될무렵 그가 회의장에
나타났다. 역시 멋진 양복차림에 환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다소
무거운 표정이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신문사초대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창녕기업을 소개하고 자신의 타산을 토로했다. 밤 10시가 되자 그는 일어서면서 돌아가서 불일이 있기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할빈에 온김에 자기가 안내할테니까 창녕기업을 한번 돌아보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이튿날 오전, 나는 한춘군과 함께 시중심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창녕기업을 찾았었다. 그러나 창남군은 약속대로 나타나지를 않았다. 접수실 당직의 말에 의하면 그는 급한 용무로 미처 우리에게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이른새벽에 진황도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후 창녕기업 본부가 진황도로 자리를 옮겼고 창남군 역시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사를 했었다.

진황도 바다가에서 창남군은 수시로 나에게 편지를 띄워왔다. 10권이나 되는 장편대하소설을 쓴다고 해서 놀랐고 정치경제학을 새로 공부한다고 해서 돋보였으며 외국나들이의 감회를 적어왔기에 새로운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1996년 봄에 창남군이 배속에 흑이 생긴걸 몰래 병원에 가서 수술해던지고 봉대로 허리를 졸라맨채 그냥 《흰돛》을 날려가고있다는 소식을 편지로 나에게 알리면서 남긴 한탄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동안 나도 외로운 타향에서 곡절을 겪으며 〈흰돛〉을 5부까지 썼다가 다 뒤엎어버리고 상, 중, 하 3부작으로 새로 출항하였소. 새로 쓴 상부 56만자는 올해 여름쯤 조한문으로 동시 출판될 듯. 중부, 지금까지 20여만자 나갔소.》, 《나이가 드니 이제 몸이 여의치 않구만.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주요목적은 반드시 완성하고 떠나야지...》, 《올해 가을 한달쯤 휴양하며 길림, 장춘의 벚들을 찾아가 만나려네. 그때 만나세!...》

그해 여름, 온다는 사람은 오지 않고 부고가 훌쩍 날아왔으니 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있으랴!

53세의 짧은 인생길에 곡절 많았던 창남군은 30년동안 문필

활동을 해온 우리 문단의 영향력있는 시인, 작가이다. 1967년 24세 때 그는 한편의 장편서정시때문에 《현행반혁명》으로 몰렸고 옥중에서도 시 쓰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문학장르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출판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문창남》 하면 그는 우선 시인으로 유명했지만 생전에 국내에서 시집 한권 출판하지 못했고 진황도에서 쓴 수필묶음은 여태껏 잠을 자고있었다. 처음에 구상하던 장편소설의 10부작 계획도 1, 2부는 출판되었지만 생애 마지막 1, 2년사이 그가 병마와 싸우면서 혼신을 불태워 새로 날리던 《흰돛》의 56만자에 달하는 미완성원고는 유작으로 남았다. 더우기 안타까운것은 새로 쓰던 최후의 유작원고를 문우들과 은사들에게 보내어 수개의견을 요청하였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정관룡교수님도 이 원고를 보고나서 《...창남이는 이제 대작가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원고는 지금까지 실중되어 주인의 손에 들어오지 않고있다.

창남군은 참으로 불행했지만 그는 또한 복도 많은 사람이다. 그를 항상 존경하여온 제자 안영수씨가 그가 못다한 일을 훌륭하게 해내었다. 수년동안 안영수씨는 《문창남문학전집》을 간행할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춘, 정철, 서영빈, 김호웅, 오상순, 김재국, 김홍란 등 시인, 작가, 평론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간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남군도 가지고있지 않던 그의 발표작품들을 수집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동분서주하였고 작품의 정리에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었고 뜻을 같이하는 겨레 젊은이들의 힘을 모아 창남군의 시집, 수필집, 중단편소설집, 《흰돛》 제1부, 《흰돛》 제2부, 이상 5권으로 150만자 분량에 달하는 《문창남문집》출판을 성공시켰다.

《문창남문집》의 간행은 우리 문단의 하나의 큰 희사이다. 우

리의 문학사는 《문창남문집》의 간행으로 아름다운 한페지를 장식할 내용이 있게 되었다. 창남군의 글을 즐겨 읽던 독자들은 흩어져 있던 그의 작품, 잠자고있던 그의 작품을 이제 5권의 책으로 향수할수 있게 되었고 창남군을 모르고있던분들은 이제 우리 문단에서 활약하던 훌륭한 작가 한분을 알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될것이다. 그리고 연구가들은 이제 창남군의 자료수집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후배 안영수씨와 의기투합하여 적극 동참해준 젊은친구들이 고맙다. 동시에 여러 모로 수고해주신 간행위원 여러분과 정성을 다해 멋진 책을 펴내준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한 작가의 진정한 생명은 그의 작품이 독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것이라는것을 저 먼 진황도 바다에서 쉬고있는 창남군에게 전하고싶다.

2006년 10월 25일
장춘에서

차 례

- 중편소설 · 옥중비사 / 1
- 중편소설 · 꽃필무렵 / 96
- 단편소설 · 왜 울었어? / 169
- 단편소설 · 물소리 / 183
- 중편소설 · 공주옷 / 196

옥중비사

기막힌 10년, 서리 낀 청춘을 한점 두점 철창속 저기압 함마에
갈아치우던 아픔은 시나브로 세월의 락엽속에 덩굴어갔다. 허나
은 나라 백성이 별안간 처절 참절한 무법천지 《대민주》도탄속에
빠져 소용돌이치던 그 악몽의 역사를 쓰고픈 욕구는 고사리나물처
럼 꺾을수록 새록새록 용솟아오른다.

지렁이나 문어새끼 아닌 뼈골 가진 인간으로서 나는 사회 부
조리에 대한 충격의 아픔을 절감했다. 그래서 나는 멍든 손목을 주
무르며 이 아픔을 쓰련다. 뼈마디가 툭툭 소리치는 그 아픔—왜 눈
보라 이는 북대황 쓸쓸한 갈숲마저 통곡하며 그 아픔을 겪지 않고
는 안되었던가...너무나 큰 대가였다!

나는 다만 동란의 참화속에 받은 나의 절통한 아픔이 사랑하
는 우리 독자들의 꽃피는 행복과 화목한 안녕의 한가닥 뿌리로 되
여 먼 미래까지 뻗어가길 기원할뿐이다.

—작자의 말

1967년 10월 25일.

서리 맞은 락엽이 스산한 하늬바람에 휘말려 가래질한 콩깍지
마냥 찌프차 유리창을 스룩스룩 붙어친다. 차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듯 모아산고개를 미친듯 에돌아내렸다.

급정거할적마다 몸이 균형을 잃고 흠칠거리는통에 수쇄톱이가
바작바작 살점을 물어뜯었다. 운전수 뒤자리에 가지런히 앉은 나와
정순이는 한 수쇄 쌍고리에 손목 하나씩 채워져있었다. 정순이는
파리 불듯 아래입술을 도도룩이 내밀고 웃이로 지그시 깨문다.

내가 묶이지 않은 손으로 정순의 퍼렇게 멎든 손을 묵묵히 받
쳐주는 순간 총을 권자가 박죽으로 나의 옆구리를 《탁!》 쳤다. 눈
에 불찌가 튀었다. 저도 모르게 운전수 등받이에 앞머리를 박노라
니 《뒤로 물러!》 하고 운전수가 쾅한다. 정순이는 아랑곳 않고 나
의 목을 안아일으켰다.

나는 신음소리를 삼키고 매지구름을 쏘아보던 눈길을 점차 거
두며 정순이의 옆모습에 부드러운 후광을 던졌다. 나의 말없는 눈
빛을 촉감했던지 정순이는 이마머리에 흘러내린 간잔지런한 머리
칼을 거듬거듬 쓸어넘기며 조용히 앞을 주시했다.

열아홉 꽃나이에 들어선 정순이—고운 손목절이대신 낫수쇄를
아프게 차고 눈앞엔 사랑의 꽃대궐 아닌 무시무시한 철창문이 기
다리건만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도 해맑게 웃는 젖먹이의 천진한
눈동자랄가 총알에 구애 없이 모나리자를 연상시키는 그윽한 애련
의 미소를 머금고있다. 나는 정순이의 이처럼 매혹적인 모습을 느
껴본 적 없었다. 어쩐지 서리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서늘한 찬 향
기를 내뿜는 심산골 다래알이나 들국화의 시름없는 모습이였다.

나는 뿌잇한 눈길을 수쇄에 떨구었다. 정순이도 약속이나 한 듯 수쇄를 어루어본다. 이 수쇄가 우리의 운명을 인생의 막 끝까지 함께 동여매어갈수 있다면 경모의 꽃다발로 하늘 높이 쳐들리라만 꽃잎 아닌 수쇄이발은 펄펄 뛰는 두 피줄을 물어뜯기만 한다.

나는 귀여운 어린 양을 철없이 산 벼랑가에 내몬듯 심한 죄의식을 느끼며 이를 옥물었다. 장차 어떤 운명의 갈림길에서 어떤 파란곡절을 겪으며 모진 세파속에 몸부림쳐갈것이나?!

《치척—》 찌프차는 빨간 특대 활자구호와 허연 대자보조각들이 훑날리는 연길시공안국 문앞에서 급정거했다. 우리 두 손목을 아프게 움아팠던 수쇄가 풀리자 퍼런 총구가 등을 밀었다. 타는듯한 두 눈길이 애처롭게 서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심장벽을 가르는 먼 우뢰소리에 온몸이 전율함을 느꼈다. 고해의 첫 발자욱을 떼며 우리는 다시한번 기약 없는 미래를 맹세하는듯 서로의 눈길을 아프게 감아쥐었다.

《빨리 걸었!》

2

9호 감방.

간수장은 험상궂은 나귀상 얼굴에 도끼눈을 하고 나를 쏘아보더니 닭발주름이 잔뜩 뻗은 눈귀에 야멸찬 랭소를 지으며 안팎이 자주빚 나는 누빈 이불 한채를 돼지우리에 복대지 던지듯 콧 안겨 주었다.

《탄뎡하면 관대하고 항거하면 엄벌이얏! 꼼작 말고 잘 반성하라쿠!》 그는 나의 몸을 수색하더니 연변대학마크와 공청단마크를 톱 잡아채고 허리띠와 신끈마저 풀어갔다.

《빠격—》 쇠빋장 지르는 소리와 《절거덩!》 자물통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에야 나는 꿈 아닌 엄연한 이 현실을 정지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독신감방이다. 5평방메터는 족히 될 것이다. 마루바닥 구들아래는 한팔 넓이 세멘트바닥이다. 철창엔 깨진 유리창이 바람에 철렁이고 그 너머 두키 넘을 담벽이 바깥세상을 가리켰다. 담너머로 거창히 솟은 아름드리 비술나무아지가 유포하게 눈에 뜨인다.

나는 창문을 열어제끼고 철창을 부르쥘었다. 누런 비술나무 가랑잎이 파아란 공기의 언덕을 넘어 이리 푸뻑 저리 푸뻑 철창속에 스며든다.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재잘거리던 참새무리가 불현듯 어디론가 휘휘 S형을 지으며 사라진다. 천정의 얼기설기 늘어붙은 거미줄 한복판엔 왕거미가 올방자 틀고 사냥물 노리듯 숨죽이고있다. 나는 입에서 갑자기 오열이 나며 타는 목마름에 겨불내가 낫다. 미칠 지경이다.

(아, 정순이도 이런데 간했겠지?! 어느 감방일까?...)

문 옷쪽 가운데에 낸 《어록》책만한 유리구멍의 퍼런 천조각이 희 걸리며 뱀새눈이 되록거린다. 《앉아있었!》

발자욱소리는 차차 멀어져갔다. 이런데 갇히고보니 신경이 자연 날카로워진다. 발자욱소리가 백여번씩 울리다 이윽히 멎는걸 보아 《ㄴ》자로 된 감방 길이가 오륙십메터는 될상싶다. 간수가 한끝에 간 틈을 타 나는 또 일어섰다.

뒤동산에 동백꽃 피는 내 어머니 사시는 고향
맑은 시내물도 정을 담아 흘렀네...

나는 철창밖으로 가만히 그녀가 배워준 노래가락을 던져보내었다.

뜻밖에 정순이의 화답하는 노래소리가 바로 벽을 사이둔 10호

감방에서 울려왔다.

산이 높고 물이 깊어 내사 못가나

넓은 바다 막히여 내사 못가나...

이 시각 나는 감방의 일체를 망각했다.

《정순이!...》

《오빠!—》

이 시각 그녀도 차디찬 철창을 부르쥐고 가슴을 떨었으리라.

《오...빠...십년이라도...기다리겠어요!...》

《난...죽은 혼이라도...찾아가겠소!》

이때 지곳은 발자욱소리가 또 가까와왔다.

3

철창새로 교묘한 달빛이 하염없이 흘러든다. 정순이도 저 달빛에 잠 못 이루겠지...

그날도 달빛만은 고요했다. 예술학교에 모여 연습하던 예인들이 시백화상점앞 십자거리광장에서 로천공연을 하게 되었다. 나는 울적한 심회를 풀어볼겸 클라리네트수로 이룬데 붙어다니며 공연에 참가하였다. 한창 서곡이 울리고 막이 열릴무렵 문득 버들바가지 쓴 한무리가 몽둥이 들고 무대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다짜고짜로 풍천을 찌고 귀한 팀파니북마저 박살을 냈다. 온통 수라장이다. 리유는 조선민요풍이 섞였다는것이다. 나는 열결에 클라리네트마디를 뽑아 곁에 넣어안고 사위를 살폈다. 자칫하면 몽둥이찔질이다.

이때 《오빠!—》 하는 소리와 함께 정순이가 나의 팔소매를 끌고 군중속으로 휩쓸려들었다. 《어서 가자요!》 더 지체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어느새 부르하통하 여울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걸었다. 인간세상의 풍진조화를 조롱하듯 달빛아래 하얀 웃음을 지으며 떠나가는 물결에 하염없이 버들잎을 훑어 뿌리다가 하남다리 옆 호수가 장의자를 찾았다. 울창한 수림이 달빛을 가리운다.

《겁나지 않소?》

《오빠만 옆에 있으면...》

정순이는 복새판치던 방금 일을 가망게 잊은듯 상글거린다.

《피아노를 맘대로 쳐볼 날이 다시 있을까요?...》

한숨을 《호—》 내쉬며 정순이는 손가락으로 피아노건반 치듯 나의 어깨를 다독이였다. 예술학교 피아노전공생인 그녀는 전교 피아노가 봉쇄되자 우리 연습실에 둔 피아노걸으로 늘 오곤 하였다. 내가 월 참에 《꽃과 소녀》란 독주곡을 부니 아직 초면이던 정순이는 인사도 없이 피아노에 마주앉아 세련된 솜씨로 반주를 해주었다. 문득 변조를 해도 9화현까지 치며 따라왔다. 스물도 안되어보이는 묘령의 소녀가 이런 놀라운 재질을 가지고있을줄은 뜻밖이였다. 그후 어쩐지 나는 연습하다가도 그녀만 보이지 않으면 허전함을 금치 못했고 그녀만 나타나면 금시 온 장내가 환해보였다. 이럴 때면 난 싱겁게도 신이 나서 뒤 소절 불지 않고 슬며시 손가락 빗질 하였다...¹⁰

고요한 침묵이 흐른다. 밤이슬이 버들잎새에서 호면에 떨어지는 소리가 졸랑졸랑한다.

《피아노소리같아요...》

《무슨 선룰일까?》

자연의 음악에 도정신한채 가웃하는 정순이의 머리를 나는 한없는 정겨움속에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함초름한 머티결에서 눈부신 달빛이 빨간 땀기속을 파고들듯 흘러내린다. 정순이는 말없이

고개 숙이고 앞가슴 단추만 두손으로 매만진다. 떨리는 숨결속에 손놀림이 점차 빨라지며 몸가늠 못하더니 그 어떤 용단을 내린듯 얼굴을 뻗 돌려 나의 두눈을 정시했다. 까만 눈초리끝에 은빛 이슬이 아롱거렸다.

《사랑의 협주곡이에요.》

나는 정순이의 도전적인 습격에 그만 얼떨떨했다. 그 매혹적인 눈길을 피할새 없이 골라둔 말도 찾을 새 없이 반사적으로 일어서는데 정순이는 어느새 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녀인을 처음 포옹하는 나의 심장은 삼수갑산 물방아 쥘듯 했다. 나는 몸을 떨며 동그란 그녀의 어깨에서 불에 덴듯 손을 떼었다. 순정에 젖은 얼굴은 그대로 한수의 그윽한 서정시였다. 달빛 머금은 함박꽃 꽃살에서 싱그러운 이슬이 흐른다. 나는 비너스와 같은 그 영원한 미소의 샘터에 목 추기고싶었다. 정순이는 봄바람에 간지럽 타는 버들개지 마냥 살래살래 도리질한다. 그럴수록 세차게 포옹하고 타는듯한 입술을 찾으니 코와 코가 맞대여 키스가 되지 않는다. 너무 맹랑하여 얼굴을 슬깃 돌릴제야 불같은 두 입술이 붙었다...

문득 나무잎새에서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달아오른 두입사이에 경종을 쳤다. 나는 불현듯 두려움이 났다. 딱 못할 일을 저지른것만 같았다.

《정순이, 난...가정배경이...》

정순이는 내 마음의 어둠속을 뚫히 읽은듯 뜨거운 입술로 나의 입을 막아주었다.

《저는 오빠 숙사에서 그 비밀일기를 옷 씻다가 보았어요. 용서하세요...》

《일기?!》

나는 저으기 놀랐다. 정순이가 나의 침실을 찾아 샤쯔를 빨아주고 해어진 목깃을 기워준적이 있었다. 일기까지 봤을줄이야! 어

졌든 불쾌한 일이다. 그속엔 나의 방황, 고민, 애수, 불만의 토로가 있기때문이었다.

정순이가 그래 그 일기를 보았던말인가?!...

《오빠의 몇십수 되는 서정시도 읽었어요. 그런 고통, 그런 분노가 있길래 썼겠지요. 저는 늘 환상에 잠기곤 해요. 오빠는 시인이 되고 저는 음악가가 되어 오빠 가사에 작곡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정순이는 내 가슴에 얼굴을 기대고 나란히 앉아 결상에 피아노치듯 손가락을 놀렸다.

나는 그녀의 환상을 깨뜨리고싶었다.

《나의 아버지인 <우파>요. 학교 교장사업 하시다가...》

정순이는 가냘픈 손으로 나의 입을 막았다.

《이런 말씀 더 하지 마세요. 오빠의 일기에서 그이가 정직한 분이란걸 벌써 알았어요. 나쁘다 해도 자식과 무슨 관계예요?》

19세 어린 나이에 비해 정순이는 너무나 일찌기 숙성했다. 계집애들이 조속한다더라만 5년 선배인 대학생의 고뇌마저 풀어줄줄 아는 가혹한 그 마음에 나는 눈시울이 뿌잇해났다.

몽환적인 첫사랑의 달콤한 신음속에 동녘이 보라빛 서막을 서서히 열었다...

4

감방안은 고요하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시계침 소리마냥 악몽 아닌 이 랑혹한 달밤을 한점한점 물어낸다. 언제야 지리한 이 밤이 끝나랴. 이따끔 소름치는 신음소리와 꺼지는 한숨소리가 어느 감방에서 간간히 복도를 울려나왔다.

나는 머리맡에 웅송그리고있는 락업을 쥐고 입술에 대었다. 대